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북, 22년 연속 종합4위 순항

동계체전서 대기록 달성 '눈앞'

바이애슬론, 단일 종목

11연패 '금자탑' 쌓아

전북 선수단이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22년 연속 종합 4위'라는 대기록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바이애슬론은 단일 종목으로 11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20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동계체전 사흘째인 이날 현재 전북은 금메달 22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9개 등 총 49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경기와 서울, 강원도에 이어 종합4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 대구보다 약 81점 가량 앞서고 있고, 대회 마지막날인 21일에도 전북선수단은 크로스컨트리와 스키, 빙상 등에서 메달 사냥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초 목표였던 22년 연속 종합 4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바이애슬론은 종목 11연패를 확정지었다.

특히 바이애슬론은 이번 대회에서 정세은(안성초)과 박희연(안성중), 김용규(무주군청) 등 3명의 3관왕을 배출했다.

또 김하빈(설천중)과 최두진(무주군청), 김선수(도체육회) 등 6명의 선수는 2관왕에 올랐다.

정강선 회장은 "종목 11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바이애슬론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바이애슬론

동계체전 '승전보'

최두진 · 김용규 · 김선수

고은정 · 박희연 · 이현주

대회서 각각 2관왕 차지해

전북 바이애슬론 선수단이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20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동계체전 사흘째인 이날 현재까지 전북 선수단은 총 37개(금 15개 · 은 13개 · 동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국 최강'이라는 전북 바이애슬론은 이번 대회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바이애슬론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 등 총 26개의 메달을 전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전북 선수들이 힘차게 설원 위를 질주하고 있다.

북 선수단에 안겨졌다.

최두진(무주군청)과 김용규(무주군청), 김선수(도체육회), 고은정(도체육회), 박희연(안성중), 이현주(안성고)는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이날 열리는 계주 경기(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에서도 메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종목 11연패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도 기

대된다.

김순배 바이애슬론 총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면서 좋은 성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아직 대회 일정이 남아있는만큼 11년 연속 종합 1위는 물론이고 전북이 22년 연속 종합 4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원삼성과 K리그 개막전 '개봉박두'

전북현대, 오늘 티켓 예매 오픈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경기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오는 2020 K리그 개막전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K리그 개막전 티켓 예매가 21일 낮 12시에 오픈된다.

티켓 예매는 전북현대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클릭하면 입장권 페이지 '예매하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9일 경기 시작 전까지 가능하다.

전북현대가 첫 포문을 여는 K리그 개막전 예매는 필수다.

지난 시즌 대구와의 개막전에서는 5000석 이상 예매가 됐으며 스페셜 존을 비롯해 가족석, 커피석 등 테이블로 이뤄진 좌석은 전석 매진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올해는 숙명의 라이벌 수원 삼성과 맞붙게 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조기 매진이 예상된다.

한편 K리그 개막전은 전년도 리그 우승팀 홈에서 FA컵 우승팀과 대진이 형성되며 지난 시즌 리그 3연패를 이룬 전북은 3년 연속 개막전을 치르게 된다.

/뉴시스

피겨 기대주 유영, 쇼트프로그램 1위

16세 이하 女 싱글 A조 75.21점 받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유영(16 · 과천중)이 제101회 동계체육대회 16세 이하부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다.

유영은 20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16세 이하부 여자 싱글 A조 쇼트프로그램에서 75.21점을 받아 선두로 나섰다.

16세 이하부 여자 싱글 A조에서 70점을 돌파한 것은 유영 뿐이었다. 유영은 기술점수(TES) 42.01점, 예술점수(PCS) 33.20점을 받았다.

국내 여자 싱글 유망주인 이혜인(15 · 한강중)이 68.96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날 초 서울에서 열린 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유영은 동계체전에서 트리플 악셀을 빼는 등 크게 무리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지만, 이날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다.

첫 과제로 트리플 악셀을 시도한 유영은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유영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기본점 10.10점에 수



행점수(GOE) 1.77점을 챙기며 안정을 찾았다.

이후에 실수는 없었다. 트리플 플립도 실수없이 소화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과 레이백 스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등 스핀도 모두 레벨4로 처리했다.

이혜인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는 등 '클린 연기'를 선보이며 2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심석희, 동계체전 쇼트트랙 1000m 우승... 2관왕 차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3 · 서울시청)가 8년 만에 나선 동계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다.

심석희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열린 제101회 동계체육대회 여자일반부 1000m 결승에서 1분33초82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18일 1500m에서 우승한 심석희는 1000m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며 2관왕에 등극했다.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느라 요륜중

시절이던 2012년 이후 동계체전에 나서지 못했던 심석희는 태극마크를 잠시 내려놓은 올해 동계체전에 나서 국내 최강자의 면모를 아낌없이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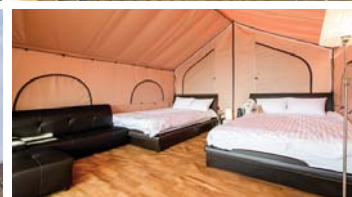
서울시청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대회에서 화려한 실업 무대 데뷔전도 치렀다.

남자 일반부 1000m 결승에서는 31세의 베테랑 곡윤기(고양시청)가 1분28초541을 기록,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김다겸(23 · 연세대)을 0.15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땀다. 김다겸은 1분28초691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